학 계 소 식

▨ 정부의 어문 정책

○ 高校 국어 문법 統一案 마련

문교부는 1984년 5월 12일 고교 문법 통일안을 마련했다. 이 통일안은 지난 82년 성균관대 부설 大東文化硏究院에 국정 문법 교과서의 개발을 의뢰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교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통일안의 내용을 조절, 이를 확정하여 1985학년도부터 사용하게 된다.

○ 서울시 가로명 재조정

서울시는 1984년 5월 29일 시내 160개의 기존 도로 이름을 변경 또는 재조정하고 이름이 없었던 도로에 새 이름을 붙이는 등의 街路名 정비 사업을 벌여 244개의 가로명을 선정하였다. 이 정비안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8월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 學術院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개정안 마련

학술원에서는 1984년 8월 11일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등의 3개 개정안을 수정·보완중이다. 이 개정안은 종래의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 언어를 고려하여 편의성이 있게 하였다. 이 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개정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맞춤법 개정안

1933년에 마련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래 50여년간에 나타난 문자생활의 변화

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 맞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둠.

〈사이시옷〉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이시옷 용법(현행)을 '순 우리말로 된 복합어'나 '한자말과 순 우리말로 된 복합어' 중에서 윗말이 홀소리로 끝난 경우에만 쓰도록 고쳤다.

보기) 나뭇잎 냇과(內科)→내과

제삿날 갓법(加法)→가법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띄어쓰기는 범위를 줄였다.

ㄱ) 부사성 형식 명사는 붙여쓴다 : 대로, 듯, 듯이, 체, 척, 체.

ㄴ) 단위를 나타내는 말 중 다음 말만 붙여 쓰고, 그 외에는 띄어 쓴다 : 시기를 나타내는 연월일, 학년, 군대의 단위, 아라비아 숫자 다음의 단위.

보기) 1983년 10월 9일 두시 삼십분, 삼학년

ㄷ) '-아, -어, -여' 뒤의 보조 용언, 관형사형 뒤의 보조 용언은 붙여 쓴다.

보기) 놀아 난다→놀아난다 읽어 보다→읽어보다

ㄹ)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보기) 홍 길동→홍길동

ㅁ)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보기) 삼천 육백 만 명→삼천육백만 명

◇ 표준어 개정안

〈현행 표준어의 개정〉

현실 언어 생활에서 기반을 굳힌 형태들은 표준어로 인정하였음.

보기) 미루나무(←미류나무), 미륵(←미력),

〈현행 표준어의 인정〉

79년 개정안에서 고친 결과가 문자 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행 표준어로 되돌렸음.

보기) 부엌○—부억×, 점장이○—점쟁이×, 조금○—쪼끔×

〈체계 및 단어간의 통일성 유지〉

현실음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분명한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 표기법상

연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였음.

보기) 웃-, 암-, 숫- 등

〈단수 표준어〉

현행 표준어 사정 이후 50년간에 나타난 언어 변화 중에서 사용 빈도가 역전된 경우를 고려하였음.

보기) 만이(←맏) 등

〈복수 표준어〉

현행 표준어의 단수 표준어에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추가하여 한 사물, 의미에 복수의 표준어를 인정하였음.

보기) 동녘/동쪽 등

◇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장 모 음〉

장모음은 같은 모음을 거듭 적기로 되어 있어(현행), 표기상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장음을 따로 적지 않기로 하였음.

보기) team [ti:m] 티임→팀

〈중 모 음〉

중모음은 각 모음의 음가를 살려적되,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기로 하였음.

보기) boat [bout] 보우트→보트　　time[taim]타임

tower [tauə] 타우어→타워　　house[haus]하우스

〈파 열 음〉

영어 파열음의 경우 무성파열음[p, t, k]와 유성파열음[b, d, g]를 구별하여 표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혼란을 피하게 하였음.

보기)

hit [hit] 히트→힛

zigzag [zígzæg] 지그잭, 직잭→지그재그

○ 대법원 '한글 전용에 따른 등기 사무 지침'을 마련

대법원은 1984년 8월 25일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돕고 등기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 상의 모든 숫자와 문자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한글 전용에 따른 등기 사무 지침'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물건의 수량과 금액은 '일·이·삼·십·백' 등과 같이 한글로 쓰게 되어 壹, 貳, 參과 같은 어려운 한자는 쓰지 않게 된다.

▨ 학회 소식

○ 한글학회(이사장 허 웅)는 제587돌 세종의 날 기념 한글학회 연구 발표회를 1984년 5월 13일 한글회관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발표자 및 발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검 차균(충남대) : {았}과 {었}의 의미 연구 △성 광수(고려대) : 추정 표현에 대한 몇 가지 검토—'르것이'와 '겠'의 형성— △권 재일(대구대) : 복합문 구성에서의 명사구 제약—접속문 구성의 주어를 중심으로— △최 창렬(전북대) : 우리말 시간 계열어의 어원적 의미 △신 현숙(상명여대) : 한국어 동사의 의미 연구(3)— 받다/얻다 ; 버리다/잃다— △문 유찬(전남대) : 뽀르 르와얄 문법과 논리학에서의 단언.

○ 세종대왕 기념사업회(회장 이 관구)는 1984년 5월 15일 세종 탄신 587돌을 맞아 글짓기 대회, 영릉 참배 등의 행사를 가졌다.

○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 李熙昇)는 1984년 5월 31일 경희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徐廷範 교수(경희대)가 「한국어 어원 모색—사람」, 徐康和 조선일보 교열부장이 「한자 略字에 대한 曲學의 분석」을 발표했다.

○ 한국글짓기지도회(회장 李熙昇), 한국국어교육연구회(회장 李應百),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 李熙昇)는 1984년 6월 9일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에 매주 1시간 이상의 글짓기 시간을 두고 고입 및 대입 시험에서 작문을 출제할 것을 골

자로 하는 글짓기와 독서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 문교부에 건의했다.

○ 국어국문학회(대표이사 鄭漢模)는 1984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대에서 제27회 전국 대회를 열었다. 발표는 국어학, 현대 문학, 고전 문학 분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었는데 국어학 분야의 발표자와 논제는 다음과 같다.

△郭忠求(忠北大) :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摩擦音化에 대하여

△朴昌遠(서울大) : 국어 子音의 세작질에 대하여

△이 태영(全北大) : 동사 '가다'의 문법화에 대하여—全北 方言을 중심으로

△홍 종선(全州大) : 속격·처격의 발달

△徐禎穆(西江大) : 경상도 방언과 근대 국어의 命令法

△李相億(서울대) : 첩어의 연구

○ 한국언어학회의 여름 연구회가 1984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연세대 인문관 내에서 열렸다. 이 연구회에서는 버틀러(영국 노팅엄大), 루스 켐프슨(런던大) 등의 강좌와 이 외에 개인 연구 발표가 있었다.

○ 한문교육연구회(회장 閔丙秀)는 1984년 6월 23일 단국대에서 세번째 연구 발표회를 갖고 고입 연합 고사 및 대입 학력 고사에서의 한문 과목 배점 상향 조정, 고교·대학 입시에서의 한문 전공자에 의한 한문 과목 독립 출제 등 5개항의 한문 교육 정상화 방안을 채택, 문교부에 건의했다.

○ 한글학회(이사장 허 웅)는 '84년 7월 6일 문교부가 펴낼 예정인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책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 완전히 새로 집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6페이지에 달하는 이 건의서에서는 '—이다'를 토씨로 본 것은 잘못이며 '주제어' 설정 및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 40여 항목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 국어국문학회(대표이사 鄭漢模)는 1984년 8월 18일 제18차 월례 발표회를 동국

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南樂浩의 「움라우트와 ㄹ의 제약」 등의 발표가 있었다.

○ 한국언어학회는 최근 여름철 연구회를 열고 새 회장에 金錫得 교수(延世大)를 뽑는 등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했다.

△부 회 장 황 적륜(서울大)
총무 이사 이 기동(延世大)
연구 이사 신 수송(서울大)
재무 이사 이 익섭(서울大)
편집 이사 성 광수(高麗大)
편집 이사 정 국(外 大)
출판 이사 성 기철(서울市立大)
섭외 이사 이 광호(國民大)
감 사 강 순경(弘益大)
감 사 박 영규(成均館大)

○ 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회장 李在徹)는 '84년 8월말 문교부에 3개항에 걸친 작문 교육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서는 작문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작문지도 연수 교육, 초·중·고교에 국어과 주임제도 신설, 초·중·고교 교사들의 저작물에 대해 연수나 연구 활동에 준하는 실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새로 나온 책

○ 고운 이름 한글 이름 : 배 우리 著

우리 나라 이름 제도의 변천, 한글 이름, 상호의 소개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냄社.

○ 국어 구조 의미론 : 양 태식 著

구조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우리말의 어휘 의미론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부산 : 태화 출판사.

○ 국어생활론 : 노 석기 著

대학생들과 일반 사회인들이 국어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국어 생활의 영역을 정리하였다.

—대구 : 형설 출판사.

○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 : Andrew Radford 著, 徐禎穆·李珖鎬·任洪彬 共譯

원 제목은 「Transformational Syntax」(1981)로 앤드류 래드포드 교수가 촘스키의 확대 표준 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을 소개하기 위하여 쓴 책이다. 옮긴 이들은 이 책에 대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촘스키가 꾸준히 발전시켜 온 확대 표준 이론을 가장 알기 쉽고 요령있게 설명한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을유 문화사.

○ 意味論序說 : 沈在箕·李基用·李廷玟 共著

대학의 상급반이나 대학원생들이 의미론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책은 제 1 부 語彙意味論, 제 2 부 形式意味論, 제 3 부 話用論 등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1 부는 沈在箕, 제 2 부는 李基用, 제 3 부는 李廷玟이 집필하였다. 최근의 의미론의 동향을 포함한 의미론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루어져 있다.

—集文堂.

○ 正書法資料 : 李升九 編著

표기법의 모든 원칙과 중요 용례들을 총망라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한자 교양, 한글 로마자 표기, 각종 용어 등을 수록했다.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존대법의 연구 : 徐正洙 著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현행 대우법의 체계'로 현행의 대우법 체계를 개관한 것으로 새로이 쓴 것이고, 하나는 '대우법의 탐구'로 이미 발표한 7편의 관계 논문을 모아 놓았다.

—한신 문화사.

○ 平安方言 연구 : 金英培

월남 동포들을 대상으로 잊혀져가는 평안, 함경, 황해 지역의 방언들을 확인하

고 체계를 잡은 16년간의 연구서이다. 북한 방언 연구 개관, 평안 방언의 형태론적 고찰, 고구려어와 평안 방언, 어휘상으로 본 평안 방언과 함경 방언, 평안 방언의 舊相 등의 순으로 엮어졌다.

—동국대 출판부.

○ 한국 가정 언어 : 러 증동

집안에서 서로서로 사용해야 할 말을 여러 보기를 통하여 들고 있다. 남녀의 형과 아우, 형수, 시동생, 시누이 등의 관계에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삼일당.

○ 한국어 셈숱화 구문의 통사론 : 김 영희

지금까지 국어 문법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셈숱화 〔수량화〕 구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및 셈숱말이 보이는 통사 현상을 체계적, 기술적으로 논하였다.

—탑 출판사.

▨ 바로 잡음

金慶漢 선생께서 본 연구소에 보내신 「어문 春秋 같뫼정 短信」 제 6 신(1984. 6. 30)의 1번 중에 맞춤법 통일안이 "……다시 국어硏究所로 移管되어 손질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국어연구소에서는 현재 맞춤법 개정 작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